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93>

JCCT 2023-1-60

##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

### Moderating Effect of Book Rea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V Viewing and Creativity

이현아\*, 강현민\*\*

Hyuna Lee\*, Hyunmin Kang\*\*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TV 시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의 TV 시청이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 책 읽기 시간,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K-FCTES)에서의 수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의 책 읽기 시간과 창의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TV 시간은 아동의 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책 읽기 시간은 이 관계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는 출생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미디어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창의성, TV 시청, 책 읽기, 아동, 미디어

**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school-aged children's TV viewing on their creativity,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book rea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V viewing and creativity. Using data from the 10th (201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9-year-old children's TV viewing, book reading, and performance on 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K-FCTES) was examine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TV viewing and creativ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book reading and creativity. In addition, children's TV view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creativity, and children's book reading moderated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the negative effects of media exposure that needs to be considered for creativity development of today's children, who are growing as digital native from birth, and it shows the importance of book reading as a factor that can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f TV exposure.

**Key words** : Creativity, TV viewing, Book Reading, Children, Media

\*정희원,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저자)

\*\*정희원, 한국스탠포드센터 연구원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1,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neets11@naver.com

Stanford Center at the Incheon Global Campus, Korea

## I. 서 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일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감정 이해, 다른 사람 관리 및 코칭과 같은 소프트 스킬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가장 어렵고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1]. 다시 말해, 이제 인간에게 기대되는 일의 핵심에 창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창의성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왔다. 먼저, 1950년대에 Guilford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창의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창의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2]. 창의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Torrance는 창의성의 하위요인을 독창성, 유창성, 개방성, 민감성으로 정의하였다[3-5].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러한 창의성을 가질 수 있으며, 창의성 발달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걸쳐 성숙하는 발달로 문화 보편적인 발달의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6].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이나 환경에 따른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아동의 창의성 발달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미디어 노출이다. 초기 연구자들은 주로 TV 시청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가설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극 가설(Stimulation Hypothesis)은 TV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결국 아동의 상상 놀이와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되므로 TV 시청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7]. 한편, TV 시청의 영향에 관한 대체 가설(Displacement Theory)은 TV 프로그램이 아무리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해준다고 하더라도 TV 시청은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예, 놀이, 책 읽기, 또래와 사회적 관계 맺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8]. TV 시청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TV 시청은 상상 놀이의 빈도나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11].

그런데 과연 많은 아동들이 출생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 노출되어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나는 오늘날에도 TV 시청은 여전히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대한 TV 시청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의 대다수는 스마트 미디어(예,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연구의 대상이 된 아동들에게는 TV가 독보적인 미디어 기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미디어와 함께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는 어린 아동들이 세상을 배워가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3~9세 아동의 보호자들은 미디어가 아동의 정서 발달, 정신적 건강, 신체적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12]. 실제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3, 14].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3~9세 아동의 약 80%가 스마트 TV를 이용하고 전체 아동 중 약 14%가 일반 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스마트 TV는 일반 TV에 비해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동들의 TV 시청 경험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오늘날, TV 시청은 여전히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책 읽기이다. 책 읽기가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등 아동의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5-17].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은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 읽기는 창의성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18, 19]. 실제로, 책 읽기 활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책 읽기와 창의성 간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20, 21]. 다양한 책 읽기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아동의 읽기 능력이 창의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22-24].

책 읽기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와 청각 자극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TV 시청과 달리 독자로서 하여금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우선, 아동은 책을 읽으며 글이라는 기호를 소리와 의미로 부호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이 수반된다. 책에 일부 그림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상상을 통해 더 많은 상황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 아동은 스스로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거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충분히 입력하고 처리할 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아동은 이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게 되며 호기심을 발달시키며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각각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TV 시청의 역할과 책 읽기 시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최신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 TV 시청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책 읽기 시간의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25-27]. 이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독서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조절함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한 독서의 조절 효과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TV 시청 시간이 창의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책 읽기 시간의 수준에 따라 TV 시청 시간이 창의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절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 책 읽기 시간, 창의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 책 읽기 시간, 창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아동의 TV 시청 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책 읽기 시간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 2. 자료 및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의 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10차년도 자료는 조사 대상 아동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9세)일 때 측정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조사 중 창의성 검사에 참여한 1434명의 자료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표본에는 남아 727명(50.7%), 여아 707명(49.3%)이 포함되었으며 월령은 평균 112.6개월( $SD = 1.4$ )이었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 조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TV 시청 시간

아동의 TV 시청 시간은 2017년 10차 한국아동패널(PSKC, 2017)에서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보호자는 아동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하루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회상하고 아동의 하루 TV 시청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기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을 환산하기 위하여 주중 하루 TV 시청 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하루 TV 시청 시간의 두 배를 합산하여 주간 총 TV 시청 시간을 계산한 뒤 이를 다시 7로 나누어 아동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을 산출하였다.

### 2) 책 읽기 시간

아동의 책 읽기 시간은 2017년 10차 한국아동패널에서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TV 시청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는 아동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하루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회상하고 아동의 책 읽기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기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일 평균 책 읽기 시간을 환산하기 위하여 주중 하루 책 읽기 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하루 책 읽기 시간의 두 배를 합산하여 주간 총 책 읽기 시간을 계산한 뒤 이를 다시 7로 나누어 아동의 일일 평균 책 읽기 시간을 산출하였다.

### 3) 창의성

아동의 창의성은 전경원과 전경남(2008)이 개발한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K-FCOT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는 총 두 가지 소검사를 통해 창의성의 네 가지 영역(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을 측정한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한국의 전래물품인 갖의 일부분 모양을 제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연상되는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아동에게 5개의 도형을 제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모양을 완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네 가지 창의성 영역에서의 수행을 종합한 종합 T점수를 아동의 도형 창의성 점수로 채택하였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통계 분석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1.33( $SD = .76$ )이었고, 일일 평균 책 읽기 시간은 0.73( $SD = .47$ )으로 나타나 만 9세 아동들의 TV 시청 시간이 책 읽기 시간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의 평균 점수는 51.24( $SD = 13.66$ )이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i>N</i>	<i>M</i>	<i>SD</i>	Skewness	Kurtosis
TV Viewing	1433	1.33	.76	1.05	2.36
Book Reading	1433	0.73	.47	1.11	2.67
Creativity	1434	51.24	13.66	.39	-.14

###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TV Viewing	Book Reading	Creativity
TV Viewing	1		
Book Reading	-.25**	1	
Creativity	-.11**	.10**	1

\*\* $p < .01$ .

표 2는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25, p < .001$ ). 다음으로 아동의 창의성은 TV 시청 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11, p < .001$ ), 책 읽기 시간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0, p < .001$ ). 이는 아동의 TV 시청 시간의 증가는 창의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책 읽기 시간의 증가는 창의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 3.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

아동의 TV 시청량과 창의성의 관계를 책 읽기 시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 (2012)의 Process Macro 1을 사용하였다. Hayes (2012)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통하여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simple slope analysis

		<i>b</i>	<i>se</i>	<i>t</i>	LLCI	ULCI
책 읽기 시간	-1SD	-2.37	.60	-3.93**	-3.56	-1.19
	MEAN	-1.36	.49	-2.76**	-2.32	-.39
	+1SD	-.34	.72	-.47	-1.74	1.07

\* $p < .01$ , LLCI: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먼저,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관계에서 책 읽기 시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한 회귀모델은 유의하였다,  $F(3, 1429) = 10.08, p < .001$ .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 = -2.93, t = -3.78, p < .001$ , 아동의 책 읽기 시간은 창의성을 예측하지 않았다,  $b = -.36, t = -3.78, p = .80$ .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 = 2.17, t = 2.29, p = .02$ ,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순 회귀성 검정을 실시하여 책 읽기 시간의 수준에 따라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책 읽기 시간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낮은 경우,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 = -2.38, t = -3.93, p < .001$ . 또한 책 읽기 시간이 평균인 경우에도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1.36, t = -2.76, p = .005$ . 마지막으로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경우,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4, t = -.47, p = .64$ . 책 읽기 시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 집단(M+SD), 평균 이하 집단(M-SD)으로 구분하여 상호작용항의 단순기울기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종합하면, 책 읽기 시간이 낮거나 보통인 경우에는 TV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창의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 읽기 시간이 높은 경우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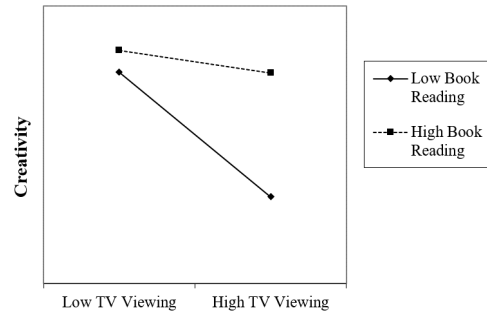


그림 1.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

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 of book reading on the TV viewing and creativity

## IV. 논 의

본 연구는 만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조절하는 책 읽기 시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만 9세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아동들은 하루 평균 1.33시간 TV를 시청하였으며, 하루 평균 0.73시간을 책 읽기에 할애하였다.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책 읽기보다 TV 시청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TV와 책의 특성 및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TV는 일반적으로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각 자극, 청각 자극을 제공하며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으며, 접근성에 있어서도 유리함을 지니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하지만 TV의 경우 TV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끊임없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책 읽기 과정은 TV를 시청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더욱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책 읽기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동들에게 더욱 인지적인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다.

아동의 TV 시청 시간, 책 읽기 시간, 창의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창의성은 TV 시청 시간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책 읽기 시간과는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지만, 터치스크린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의 기능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아동이 스마트 TV를 이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29]. 또한,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 간에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TV 시청 시간은 낮은 수준의 책 읽기 시간과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이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이것은 TV 시청의 영향에 관한 대체 가설(Displacement Theory)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아동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책 읽기에 할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TV 시청 시간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책 읽기 시간은 이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인의 경우 책 읽기가 창의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책 읽기가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는 TV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TV 시청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TV 시청 시간은 줄이고 책 읽기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아동의 TV 시청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는 아동들이 자신의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을 확장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을 도형 창의성으로만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아동의 창의성은 도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창의성, 신체를 통한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동작 창의성 등 다양한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고, 부모나 교사 설문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형 창의성 검사는 아동의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아동에게 구두 응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의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창의성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창의성을 측정해본다면 TV 시청과 책 읽기가 아동의 창의성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TV 시청 시간과 책 읽기 시간을 양적으로만 측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각 활동을 보다 질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시간 TV를 시청하는 아동들이 그 시간 동안 모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아동은 보호자의 감독 없이 혼자서 매우 수동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지만, 어떤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며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는 동안 부모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창의성의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호기심의 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3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TV 시청 과정의 질적 차이가 아동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책 읽기 시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 읽기 과정에서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본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의 함의점이 도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의 책을 읽는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는지, 책을 읽은 후 책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기회가 있는지 등의 요인들을 함께 파악해본다면 책 읽기 과정의 어떤 특성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책 읽기를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혹은 교육 자료 개발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TV 시청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한 TV 시청과 책 읽기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미디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동된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는 책과 TV라는 전통적인 매체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31, 32].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TV 시청 시간이 책 읽기와 같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TV 시청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중 대체 가설에 근거를 더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 References

- [1] Manyika, J., Chui, M., Miremadi, M., Bughin, J., George, K., Willmott, P., and Dewhurst, M., "A future that works: Automation, employment, and productivity. Edited by McKinsey Global Institute," Retrieved June 20, 2018, from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Featured%20Insights/Digital%20Disruption/Harnessing%20automation%20for%20a%20future%20that%20works/MGI-A-future-that-works\\_Full-report.ashx](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Featured%20Insights/Digital%20Disruption/Harnessing%20automation%20for%20a%20future%20that%20works/MGI-A-future-that-works_Full-report.ashx), 2017.
- [2] Guilford, J. P.,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Vol. 5, pp. 444 - 454, 1950.
- [3] Guilford, J. P.,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NY: McGraw-Hill*, 1967.
- [4] Runco, M. A.,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Amsterdam, The Netherlands: Academic Press*, 2014.
- [5] Torrance, E. P., "Non-test ways of identifying the creatively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Vol. 6, No. 3, pp. 71-75, 1962.
- [6] Runco, Mark A.,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Burlington, MA: Elsevier*, 2007.
- [7] James, N. C., and McCain, T. A., "Television games preschool children play: Patterns, themes and us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26, No. 4, pp. 783-800, October 1982.
- [8] Roberts, D. F., Henriksen, L., Voelker, D. H., and Van Vuuren, D. P., "Television and schooling: Displacement and distraction hypothes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Vol. 37, No. 2, pp. 198-211, 1993.
- [9] Runco, M. A., and Pezdek, K., "The effect of television and radio on children's creativ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1, No. 1, pp. 109-120, 1984.
- [10] Valkenburg, P. M., and Van der Voort, T. H., "Influence of TV on daydreaming and creative imagination: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6, No. 2, pp. 316-339, 1994.
- [11] Petterson, C. C., Peterson, J. L., and Carroll, J., "Television viewing and imaginative problem solving during pre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47, pp. 61 - 67, 1987.
- [12] Korea Press Foundation., "Children and Media in Korea 2020,"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2020.
- [13] Roseberry, S., Hirsh Pasek, K., and Golinkoff, R. M., "Skype me! Socially contingent interactions help toddlers learn language." *Child Development*, Vol. 85, No. 3, pp. 956-970, 2014.
- [14] Behnamnia, N., Kamsin, A., and Ismail, M. A. B. "The landscape of research on the use of digital game-based learning apps to nurture creativity among young children: A review,"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Vol. 37, pp. 100666, September 2020.
- [15]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and Caulfield, M.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4, pp. 552-559, 1988.
- [16] Kümmerling-Meibauer, B., "What goes on in strangers' minds? How reading children's books affects emotional development," *Narrative works: Issues, Investigations, & Interventions*, Vol. 4, No. 2, pp. 64-85, 2014.
- [17] Lysaker, J. T., Tonge, C., Gauson, D., and Miller, A., "Reading and social imagination: What relationally oriented reading instruction can do for children," *Reading Psychology*, Vol. 32, No. 6, 520-566, 2011.
- [18] Piaget, J.,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2022.
- [19] Vygotsky, L.,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6.

- [20]Bezerra, R. L. M., Alves, R. J. R., and Azoni, C. A. S., "Creativ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lligence and reading skills in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Psicologia: Reflexão e Crítica*, Vol. 35, No. 1, pp. 1-15, 2022.
- [21]Wang, A. 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creative thinking to reading and writing,"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Vol. 7, No. 1, pp. 38 - 47, 2012.
- [22]Marcos, R. I. S., Fernández, V. L., González, M. T. D., and Phillips-Silver, J., "Promoting children's creative thinking through reading and writing in a cooperative learning classroom,"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Vol. 36, pp. 100663, June 2020.
- [23]Ritchie, S. J., Luciano, M., Hansell, N. K., Wright, M. J., and Bates, T. C., "The relationship of reading ability to creativity: Positive, not negative association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6, pp. 171-176, August 2013.
- [24]Saeed, K., Reza, Z., and Momene, G.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How creative ideas flourish through personal and academic literacy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Psychology*, Vol. 2, No. 2, pp. 61 - 70, April 2013.
- [25]Ennemoser, M., and Schneider, W., "Relations of television viewing and reading: Findings from a 4-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9, No. 2, pp. 349-368, May 2007.
- [26]Koolstra, C. M., Van, T. H., and Voort, D., "Longitudinal effects of television on children's leisure time reading a test of three explanatory model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4-35, September 1996.
- [27]Singer, J. L., and Singer, D. G., "Television and reading in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Children's Literature*, Vol. 9, pp. 126 - 136, 1981.
- [28]Xu, X., and Pang, W., "Reading thousands of books and traveling thousands of miles: Diversity of life exper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ES and creativ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61, pp. 177-182, 2020.
- [29]Christakis, D. A., "Interactive media use at younger than the age of 2 years: time to rethink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guideline?," *JAMA Pediatrics*, Vol. 168, No. 5, pp. 399-400, May 2014.
- [30]Shah, P. E., Hirsh-Pasek, K., Kashdan, T. B., Harrison, K., Rosenblum, K., Weeks, H. M., Singh, P., and Kaciroti, N., "Daily television exposure, parent conversation during shared television viewing and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ions with curiosity at kindergarten," *PLoS One*, Vol. 16, No. 10, pp. e0258572, October 2021.
- [31]Kim, B.,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smartphone usage tim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pp. 23-30, 2022.
- [32]Kim, D., and Song, Y-K., "Young children teacher's application experience and utilizing observation of digital dev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0, pp. 126-136, 1994.